

보성군,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실시

17일부터 31일까지 분야별 현장 교육
농업정책 등 핵심 영농기술 전달 예정

보성군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및 읍·면 회의실에서 농업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 과정 14회의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특화 품목으로 1월 30일 키위반과 1월 31일 양봉반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교육 담당자(061-852-7014)에게 문의하면 품목별 교육 참여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김숙희 소장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찾아가는 읍·면 교육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인에게 변화하는 농업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영농계획 수립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育 과정은 고품질 벼, 고추, 감자 재배 기술 등 품목별 전문 기술

/강종수 기자



보성군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및 읍·면 회의실에서 농업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 과정 14회의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 웰니스 관광 책자 발간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지난 해 11월 개관함에 따라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웰니스 관광지를 소개하는 '완도 웰니스 관광'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완도 웰니스 관광' 안내 책자는 현재 완도읍 권역에 대한 책자가 발간됐으며, 향후 노화·소안·보길, 청산, 금일·금당·생일 등은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완도읍' 권역 책자에는 국내 최초로 견립대 운영 중인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 여행 코스를 소개했다.

특히 완도수목원, 청해진 유적지, 약산 해안치유의 숲, 다도해 일출공원, 신지 명사십리 등 주요 웰니스 관광지 14개소에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포인트와 스토리를 담았다.

책자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할 예정이며, 완도문화관광 누리집(관광 안내 책자 다운로드 게시판)에서 직접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문수 기자

고흥,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농업인 1천3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작목별 재배기술과 새해 영농계획 수립, 신기술 보급 등을 교육해 작목별 영농 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영농 시작 전부터 교육에 참여해 올해 영농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농업인의 효율적인 영농계획 수립을 돋고, 나아가 앞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농업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농업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유자 교육(1월 16일), 농산물 유통(1월 17일), 식량작물(1월 18일), 양봉 교육(1월 19일), 마늘·양파 교육(1월 22일) 5개 과정을 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 실시하며,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영농종합 과정을 읍·면 순회 교육

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분야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해 3시간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영농 시작 전부터 교육에 참여해 올해 영농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농업인의 효율적인 영농계획 수립을 돋고, 나아가 앞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농업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농업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goheung.go.kr/farm)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

/최종민 기자

해남군,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발급

해남군은 여성농어업인들이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 농어업 인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행복 카드를 발급해 영화관, 안경점, 미용실,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

세 이상 만75세 이하(194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오는 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에 지급을 받았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면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사업 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농협을 방문해 직접 발급받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7천47명의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아 여성농어업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소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윤보현 기자

향으로 돌아와 거주 중이다.

군은 이날 진행된 취재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진도군 공식 유튜브 등 동영상 기반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참혹한 전쟁에 젊음을 희생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이 된 참전용사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동네 영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진도군, '우리동네 영웅들' 2호 영웅 선정

진도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가유공자 인식개선 사업 '우리동네 영웅들' 제2호 영웅을 선정했다.

'우리동네 영웅들'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찾아가 전쟁경험담과 미래세대에 전하는 말씀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

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제2호 영웅으로 문두철(91세, 군내면) 어르신을 선정했다.

문두철 어르신은 1953년 21세에 징병돼 제주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중부 전선의 치열한 전투에 참전한 산 증인이다. 또한 부산에서 반공포로 수용소와 헌병대에서 근무를 하고 휴전이 된 후, 전역해 고

장흥군, 장애아동수당 확대

장흥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사업을 2024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흥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장애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군 자체사업이다.

장흥군은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장애아동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6만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백두연 기자

